



지난 24일 버지니아에서 열린 '햄 비스킷 먹기 대회'에서 60개를 먹어 치워 우승한 이선경(왼쪽)씨가 42개를 먹어 준우승을 한 배드랜즈 에릭 부커씨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재미동포 이선경씨 '먹기대회' 우승

"1~2분 음식물을 마구 먹다 보면 삼켜지지도 않고 '이걸 계속 먹어야 하나' 하는 마음도 들지만 나중에 대회에 지고 후회해서는 안된다는 하는 생각이 들면 곧바로 한국인 특유의 정신력으로 극복을 하게 됩니다."

숫자기를 잡아먹는 '블랙위도우'(흑거미)란 독특한 별명을 갖고 있는 재미 동포 이선경(38)씨는 각종 먹기 대회에서 거대한 채우기의 미국 남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독특한 한국여성이다.

지난 24일 버지니아에서 열린 햄 비스킷 먹기 대회에서는 60개를 먹어 치워 42개를 먹은 2등을 여유있게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올들어 벌써 세번째 우승이다.

그는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버거킹 햄버거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으며 먹기 대회로 유명해 진뒤 곳곳에서 친선 먹기대회에 참가 요청이 많다.



### ■한국에 귀화한 '克日 전도사'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 “일에 지지 않으려면 제대로 연구해야”

### 양반정신 VS 무사정신 차이가 불안한 한·일 역사 인태

### 일본인 사고방식엔 손자병법...팽창주의 본질 이해해야

“일본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적이 나를 알면 적이 나를 알아잡는다”

“일본에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호사카 유지(50·세종대)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호사카 교수는 한국 체류 19년째로, 한국에서 한일 역사를 연구하며 일본의 황국사상과 침략주의적 정신구조를 고발해온 일본인 학자다. 한일 관계사를 공부하러 한국에 왔다가 조국의 치부인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행위를 파헤치는 고발자가 된 그는 한국 유학을 왔다가 한국 여성과 결혼한 뒤 3년 전 한국에 귀화했다.

호사카 교수의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한 시각은 지극히 ‘일본적’이고 실증적이다. 과거 역사를 볼 때 한국은 침략사상으로 무장된 일본에 당하기만 했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호사카 교수의 분석.

호사카 교수는 “한국은 기본적으로 유교사상으로, 이른바 ‘양반정신’이 강한 반면 일본은 유교를 유학으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무사적인 생각이 행동을 결정한다”고면서 “보편적인 인간 중심의 원리를 중시하는 유교는 ‘외부’를 보지 않는 약점이 있는 반면 무사들은 항상 외부 침략에 대비하는 사고가 몸에 배어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외부 시각을 먼저 생각하고 기민하게 대처하는 반면 한국은 외부 변수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민족과 같은 내부 문제에 더 민감

한 문화를 갖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라는 것.

독도 문제만 해도 그렇다. 한국은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는지 제대로 읽으려 하지 않고 한국의 관점에서만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일본은 외부의 시각을 중시해 독도문제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고 호사카 교수는 지적한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인들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손자병법의 정신이 깔려 있다고 단언한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미리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준비한 다음 세워놓은 계획에

맞추어 순서대로 일을 진행하고, 이길 것이라는 계산이 서지 않으면 절대로 일을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

이에 비해 한국인은 유교사상에 기본적인 사고의 뿌리를 두고 있는 한국인에게 선제공격이란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는 또 한국은 남의 나라 연구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으며 특히 일본 연구가 소홀하다고 생각한다.

한일역사 문제는 일본에 많은 정보와 자료가 있는데 50년전, 100년전 일본 문서를 해독할 인력이 거의 없다 보니 일본 주도도 연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

호사카 교수는 “서울대에 일본어과가 없는 것이 일본을 학문적으로 깊이 연구하려는 자세가 결여돼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 영 시민권 포기 이루마

### 내달 10일 해군 입소

영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에 입대한다고 밝힌 피아니스트 이루마가 내달 10일 오후 3시 경 남 진해 해군기초군사훈련소에 입소한다.

신체검사에서 2급 현역 판정을 받은 이루마는 이곳에서의 훈련



을 마친 뒤 군악대에서 복무할 예정이며 군홍보단에서 활동을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이루마의 소속사 스톱프뮤직은 27일 전했다.



### 미스코리아 미스 서울 선발

26일 사이판에서 열린 미스코리아 미스서울 선발대회에서 입상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미 박성민(숙명여대 무용학과 졸업), 미 이윤아(연세대 신문방송학과 3학년), 선 안선하(가톨릭대 국제관계학과 3학년), 진 이하늬(서울대 대학원 국악과 석사 1학년), 선 김유미(연세대 의류환경학과 4학년), 미 민지연(한국과학기술대 바이오시스템/산업디자인과 3학년).

### 인사

◆광주시교육청 <4급 진보 >▲시설과장 유옥진 ▲시설관리단장 임상복

### 내방

▲이재봉씨(건설교통부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장) ▲이성규씨(“건설지원과장)

평화로운 때가 가장 조심할 때 국가안보관련 신고상담은 '11'로

### “먼저 간 아내 때문에 기부 앞당겨”

### 워렌 버핏 “상속세 폐지는 혐오스런 행위” 비난

워렌 버핏 버크셔 헤더웨이 회장 겸 CEO가 자신의 재산 가운데 85%를 예상 보다 빨리 게이트 재단 등 자선단체에 기부기로 한 것은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 때문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버핏은 부인 수전이가 자신 보다 더 오래 살 것으로 생각했고, 자신이 숨진 뒤 부인이 자선사업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려 했지만 지난 2004년 수전이가 먼저 세상을 뜨는 바람에 기부가 앞당겨졌다는 것.

버핏은 포천지에 먼저 떠난 아내도 자신이 좀 더 일찍 기부를 하더라도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버핏은 그동안 죽기 전에는 기부하지 않을 것이고 죽은 뒤에야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이라고 밝혀왔으며 특히 이 중 대부분은 자신이 아내와 함께 만든 ‘수전 톰슨 버핏 재단’에 기부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그러나 ‘수전 톰슨 버핏 재단’ 보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 소프트 회장 부부가 만든 게이츠 재단이 규모도 크고 역할도 뛰어나다는 점이 게이츠 재단에 거액을 기부하게 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게이츠 재단은 그동안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및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 어린이 질병에 대한 연구와 예방 및 치료에 기금을 사용해 왔다. 향후 수년



버핏(사진 오른쪽)이 26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회장 부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간 재단 직원수도 275명에서 5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한편 버핏은 26일(현지시간) 뉴욕 공립도서관에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회장 부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부 약정식과 이어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폐지 시도를 혐오스런 행위로 규정하면서 유산세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상속세는 매우 공정한 세금이라면 기회 균등의 이상을 유지하고 부유층에게 특혜를 주지 않기 위해서도 상속세는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버핏과 점심’ 5억원 OK

### e-베이 경매...기부 후 인기 급등

얼마를 지불하면 워렌 버핏(75) 버크셔헤더웨이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와 뉴욕의 스테이크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

버핏과 점심을 함께 하는 기회를 놓고 e-베이 경매가 진행중인 가운데 입찰가격이 26일 오후 2시 현재 5만100 달러를 기록했다.

버핏 회장은 7년째 이러한 행사를 하고 있으며, 경매 4일만에 이미 지난해 낙찰가 35만1천 달러를 넘어선 사상 최고 입찰액을 기록했다.

일주일 예정인 경매는 앞으로 3일간 더 진행되며 최종 낙찰자는 자신과 친구 7명 등 모두 8명이 버핏 회장과 점심을 함께 하며, 그의 경영 전략과 투자 철학을 결정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 장흥 ‘서예가’ 이봉준씨

### 부적·서예 접목작품 특히 출연

장흥의 한 서예가가 부적(符籙)과 서예를 접목시킨 작품으로 특가를 출품해 화제가 되고 있다.

장흥지역에서 서예가로 활동중인 이봉준(58)씨는 부적이 지난 생활실용성과 서예가 지난 예술성을 아우른 작품 11점을 최근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했다.

출원작품은 만사대길, 합격을 기원하는 작품들로 여기에 한문 글씨체를 조합했으며 크기는 35cm×70cm 정도이다.

작품에는 불가와 도가 등에 전해 내려오는 각종 행운의 부적과 서예의 아름다운 글씨를 효과적으로 배치해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그림과 같은 시각적 효과를 줬다. 특히 부적은 지갑에 넣고 다닌다는 기존 관행을 깨뜨리고 집안이나 사무실 등에 걸어놓고 항상 감상하는 장



이봉준씨가 27일 특유의 글씨체와 부적형상으로 작품을 그리고 있다.

식에술품으로 개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장흥에서는 이미 유명한 지역 서예가인 이씨는 강암 서예대전 대상, 김성전국서예대전 대상, 국제현대미술 창작전 종합대상, 신동아 현대미술대상전 종합대상 등을 수상할 정도로 경력이 화려하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kwangju.co.kr

### 신학자 정미현 목사

### ‘카를 바르트 상’ 수상



신학자 정미현(43) 목사가 비서구인이자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카를 바르트 상’ 수상을 수상했다.

독일개신교회학(EKD)은 최근 ‘스위스 미션21’ 여성분과 의장으로 활동하는 정 목사를 올해 이상의 수상자로 선정했다. 시상식은 8월30일 베를린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 목사는 시상식 때 ‘한국 여성신학자의 카를 바르트 이해’라는 제목으로 강연할 것으로 알려졌다.



### 금호아시아문화재단 ‘손열음 양에’ 장학서식

금호아시아문화재단 박삼구 이사장(오른쪽)은 27일 피아니스트 손열음 양을 2006년 해외유학 음악 장학생으로 선정하고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 화측

▲하득수(남창중학교)씨 장남 태진군 박정재씨 장녀 혜진양=7월2일(일) 오후 1시 메리어트웨딩홀 1층 사파이어홀, 피로연 28일(수) 영암읍 청풍원 뷔페.  
▲윤학성씨 장남 호영군 노주군(대원자동차공업사 대표)씨 장녀 은주양=7월 2일(일) 오후 5시 연세대 동문회관 3층 대회의실. 062-676-8844

### 알림

▲광주생명의 전화(대표 소진택) 상담=24시간 전화 상담(1588-9191) 월~금 오전10시~오후4시 일반 면접 상담(가족문제, 자녀문제, 가정폭력, 자살 등) 사전예약 062-223-9191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

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변호사 공제원 법률사무소 토요 무료법률상담=매주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 사무실 223-2100  
▲비틀기가족폭력상담소 무료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각종 상담. 직접 상담은 전화나 메일로 사전예약 매주 목·금요일. 652-1366. nam939@dreamwiz.com  
▲(사)이주가족복지회 긴급지원 및 상담=동남아 결혼이민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및 문화강좌. 363-2963. www.ejufamily.com 문화강좌는 월·금 오전 10시~낮 12시, 수 오전 10시~오후 3시(점심 제공)

### 동창·동문회

▲복성중 제 28회 동창회(회장 이혁) 월례회=28일(수) 오후 7시 등

촌. 373-1566

▲광주지산초교 제 38회 동창회(회장 최중채) 모임=7월1일(토) 오후 7시 무등골. 572-9931  
▲무등중 7회 정기모임=7월 1일(토) 오후 6시 동경청. 671-2223  
▲복성중 제 32회 동창회(회장 김용운) 월례회=7월2일(일) 오후 6시 둔촌. 654-2525  
▲광주 사대부중 제 4회 동창회(회장 전성수) 모임=7월 4일(화) 오후 7시 이가식당.

### 모임

▲해군 105기 정기총회=30일(금) 대전 계동동 해군본부. 011-642-0154

### 향우회

▲재광 곡성군 삼기면 향우회(회

장 김채정) 모임=7월2일(일) 오후 7시 예술영양술합.266-5566

▲재광 장흥군 향우회(회장 안태경) 총연합회 총회=7월1일(토) 오전 10시 구 전남도청 앞 출발. 장흥 풍물시장 1주년 기념행사.

### 모집

▲장애인 직업훈련생 모집=만 15세 이상 전맹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과정·뇌병변 특화과정·프로그램 과정 수강생 모집. 교육비 무료. 기숙사 등 편의 제공. 문의 061-320-7051~5  
▲여성생활체육 자전거 강자 수강생 모집=여성이면 누구나 가능. 매주 월·화·금 오전 9시부터 사무실 민공원 테니스장. 016-9877-0360  
▲극단 청춘 회원 및 단원 모집=‘찾아가는 문화활동 및 창작극 활성화’를 위한 특별 기획 공연 등 차기

작품 참여자 모집. 20세 이상으로 배우·기회·연출 분야. 7월 9일까지. 문의 430-5257.

▲월산동 성당 자원봉사자 모집=독거노인 방문 각종 봉사 활동 참여자 모집. 월산동 성당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369-7005

▲청수 조기 축구회 회원모집=45~55세 매주 수·금·토·일요일 오전7시부터 수창초 운동장 017-612-7695

▲광주동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중학교 1~2학년 대상, 숙제 지도·보충심화학습·문화·예술·스포츠, 부모 간담회, 가족캠프, 무료급식, 건강관리, 생활일정관리, 학기중 평일 오후 4시~밤10시까지 운영 225-7224

▲초·중·고 과정 무료 학생·교사 모집=월~금요일 오후 7시~10시 30분 광주시 동구 계림동 사랑의 교실, 교사 모집(국어·영어·과학·사회·도덕 과정) 223-8529, 011-9712-4316

▲한국문화센터서광주지역(원장 정혜영) 회원 모집=홍패션·커피·

월드·개량한복·손뜨개·꽃꽂이·아동미술·포크아트·가곡공연 등, 광주시 서구 내방동 구 신학대 사거리 지하철 상층역 4번 출구 375-7178, 011-640-2559

▲우리겨레나눔되기 광주전남운동본부 회원 모집=통일 쌀 보내기와 못자리용 비닐 보내기 등 남북교류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하실 분 431-0035

▲천도교 광주교구 시일식 봉행=매주 일요일 오전11시 광주교당, 천도교 교인 및 동학에 관심있는 분 525-1391

▲인우회 회원모집=광주지역 전·외경 전역자들의 모임, 총무 011-606-7789

▲불림 동호회 ‘다이아몬드’ 회원모집=30세 이상 부부, 매월 첫째 셋째 금요일 011-607-0347

### 부음

▲인정동계 별세 송기(부산 삼남종합건설 이사)·경기(해남YMCA 이사)씨 부친상 김영희·박원상·김용재·이수원(해남해일화원)씨 부부상=발인 28일(수) 해남종합병원 019-602-2345

▲노순례씨 별세 김인숙·상인·인섭·희경·희순·정희·희숙씨 모친상 김점진·박정현·이종현씨 빙모상=발인 29일(목) 그린장례식장 10분 향소 250-4410

넓고 편안한 무등장례식장 ■복구 우산동 안보회관(구 초전) 대표:(062)515-4488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 가족납골묘특별분양 ☎(062)521-1100